『종교학연구』 제40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2, pp. 1-26.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의 검토
: 「정감록(鄭堪錄)」 편을 중심으로*

최 종 성**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진본 정감록』의 출간
Ⅲ. 「정감록」 편의 내용 분석
1. 답산자: 대화의 주체
2. 왕조의 교체: 백년왕국론
3. 이-정 교체기: 혼돈의 징후들
4. 십승지: 피장처
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17년 1월 어느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정감록 문헌 하나를 운 좋게 입수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1]가 발행한 『진본 정감록(眞本鄭堪錄)』[2]이었는데, 무엇보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柳田文治郎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어서 성명의 발음표기를 확정 짓기 곤란한 형편이다. 이름(文治郎)의 경우에는 '분지로(ぶんじろう)' 외에 대안이 없지만, 성(柳

다 발행연도가 1923년이라는 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갑자년(1924)을 한 해 앞둔 1923년, 그간 필사본 형태로 떠돌던 정감록이 비로소 간행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봇물 터지듯 여러 책이 경쟁적으로 발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첫 출발은 1923년 2월 15일 동경에서 발행된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본『정감록(鄭鑑錄)』[3]이었다. 이는 이미 1913년 아유가이 후사노신(鮎具房之進)이 정리·검토한 문헌을 저본으로 활용하면서 서두에 자신의 비평을 길게 덧붙인 편저서였다. 한 달여 뒤 호소이 하지메 본의 출간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졌고, 3월 말에는 감상을 담은 서평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4]

동경에서 시작된 정감록 간행의 열기는 한 달 뒤에 서울로 옮겨붙는다. 1923년 3월 19일 김용주가 편집한『정감록』이 국내 최초의 정감록 간행본으로 출간되었다.[5] 앞선 호소이 하지메 본과 동일한 서명이지만, 내용면으로도 상이하고 양적으로도 훨씬 풍부한 문헌들을 담고 있었다. 이보다 한 달 뒤인 1923년 4월 18일에 현병주 본『비난 정감록진본』[6]이 연이어 세상에 나오게 된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호소이 하지메 본에 가까웠지만, 수록 문헌마다 총론적 비판과 함께 세부 비평을 가한 것이 특징이었다.

앞서 거론한 호소이 하지메 본, 김용주 본, 현병주 본 등이 그나마 우리에게

田)의 경우에는 '야나기타(やなぎた)'와 '야나기다(やなぎだ)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본고에서는 '야나기타 분지로'로 표기할 것이다.

2)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京城: 以文堂, 1923).

3) 細井肇,『鄭鑑錄』(東京: 自由討究社, 1923). 동경 자유토구사의『鄭鑑錄』은 호소이 하지메가 책임편집을 맡았던 선만총서(鮮滿叢書) 시리즈 제7권으로 발행되었고, 보름 남짓 상간에 초판(1923년 2월 15일), 2판(1923년 2월 22일), 3판(1923년 3월 2일)이 거듭되었다. 이후 4판(1926년 10월 10일)은 서울의 자유토구사에서 조선연구총서(朝鮮研究叢書) 시리즈 제10권으로 발행되었다.

4)「迷信打破의 絶戶指針, 鄭鑑錄을 讀한後 感想」,『매일신보』1923.3.31.

5) 金用柱,『鄭鑑錄』(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3). 김용주 본『정감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4개 대학도서관(경상대, 충남대, 한림대, 원광대) 및 하버드 엔칭 도서관 등 6곳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남혜원,「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정감록』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33-34].

6) 玄丙周,『批難鄭鑑錄眞本』(京城: 右文館書會, 1923).

익숙했던 것은 1981년 안춘근이 그간의 간행본과 자신이 입수한 필사본을 모아 출간한『정감록집성』7)에 그것들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호소이 하지메 본은 1968년 김수산이 그것을 저본으로 삼은 번역서(김수산·이동민 편,『鄭鑑錄』, 명문당, 1968)를 내놓은 이래 John Jorgensen의 영역본8)으로 이어지면서 정감록 문헌의 표본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다시 야나기타 분지로 본『진본 정감록』으로 돌아가 보자. 이 책은 정확히 1923년 3월 19일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시간상으로 보면 국내 최초 정감록 간행본이랄 수 있는 김용주 본과 동일한 날짜에 간행된 것이다. 일본인이 편집과 발행을 맡아 출판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게 다를 뿐, 엄연히 국내 최초의 정감록 간행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후대 서지학자의 마당발이 닿지 않는 바람에 집성본에 실리지 못했고 그 탓에 학계의 시선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편·저자명	서 명	발 행 일
細井肇	『鄭鑑錄』	1923년 2월 15일
金用柱	『鄭鑑錄』	1923년 3월 19일
柳田文治郎	『眞本鄭堪錄』	1923년 3월 19일
玄丙周	『批難鄭鑑錄眞本』	1923년 4월 18일

<표1> 정감록 간행본

Ⅱ.『진본 정감록』의 출간

앞서 언급한 대로, 1923년 2월부터 한두 달 사이에 4권의 정감록 간행본이 경쟁적으로 출간되었다.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와 인쇄업자들의 장삿속도 한몫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개벽』34호(1923년 4월)는 이런 세태를 꼬집는

7) 안춘근 편,『鄭鑑錄集成』(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8) John Jorgensen,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 Chŏng Kam nok and insurrectionary prognostication in pre-moder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8.

비평을 내놓는다.

> 근래에 소위 鄭堪錄이라는 虛無荒誕의 글이 공연히 世에 발포되며 그를 발행한 日鮮의 돈버리꾼들은 연일 광고를 해가면서 야단법석을 하고 잇도다. 盖 鄭堪錄 등의 書類는 古昔의 특수계급에 속한 그 者들이 自家의 세력을 부지 확장하자는 술책으로써 그러한 운명적 관찰을 유포한 者에 불과한 바라. 일본이 維新하고 중국이 혁명하는 그간에 잇서 유독 조선의 대중이 그 따위의 허황한 전설의 拘囚者가 되야 自進自立하지 못한 그것을 생각하면 꿈에 생각하야도 기가 맥히는 일이어늘 저 謀利의 徒輩가 이제 또 그것을 出版競賣한단 말인가.[9]

정감록을 혹세무민의 표상으로 간주하고 일본과 한국의 돈벌이꾼들이 벌이고 있는 광고경쟁을 매섭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판되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전 달에 출간된 김용주 본과 야나기타 분지로 본일 것이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이 후대 학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출간 당시 당대의 언론에 몇 차례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이다. 공식 출간일 6일 뒤인 1923년 3월 25일자 『조선일보』는 "정감록의 경쟁"이라는 제하에 김용주 본과 야나기타 본, 그리고 아직 국내에 상륙하지 않은 호소이 하지메 본의 출간 사항을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매일신보』에도 "秘訣鄭鑑錄은 류사한것이 만흐니 진본에 주의가 필요"라는 제하에 유사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 이인의 예언(異人豫言)혼것으로 됴션에 유명한 비결뎡감록(秘訣鄭鑑錄)은 셰샹ᄉᆞ룸이 아ᄂᆞ바와 갓치 진긔한 칙이나 그러나 셰샹에 도라다니ᄂᆞ 것은 거의 등본인고로 와전과 오셔(訛傳誤書)가 만하셔 신용치못할 것이라 이제 됴선 사람의 명의로 진본이 출판되야 됴션도셔(朝鮮圖書)와 ᄒᆞᆫ셩도셔(漢城圖書) 두 회사에셔 발ᄆᆡ한다ᄂᆞᆫ대 칠셔ᄉᆞ십결 일빅팔십폐지(七書四十訣百八十頁)의 큰 칙을 대금은 겨우 팔십전이라ᄂᆞᆫ 렴가이오 ᄂᆡ용도 다른칙과 달니 뎨일정확한 것이라하며 이외에 진본뎡감록(眞本鄭堪錄)이라ᄂᆞᆫ칙이 ᄂᆡ디사람의 명의로 이

9) 「惑世誣民의 鄭堪錄 發行에 對하야」, 『개벽』 34 (1923.4): 43.

> 문당(이문당)에 발미하는것이 잇스되 이것에 비하야 닉용과 기타에 손식이 잇다하며 닉디에셔도 셰졍씨(細井)가 발힝한것이 잇스나 아즉 됴선에 오지 안이하얏다는대 디방인사들이 칙을 살펴는 특별이 쥬의하야 내용의 확실흔 것을 취홀 필요가 잇다하더라[10]

기사는 동년 동월 3월 19일에 동시 간행된 김용주 본과 야나기타 분지로 본에 관한 기본 서지사항을 소개하고 말미에 일본판 호소이 하지메 본의 발행 소식을 덧붙이고 있다. 먼저, 김용주 본의 경우 한성도서주식회사와 조선도서주식회사를 통해 발행·발매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방대한 문헌(7서, 40결, 180쪽)을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1] 기사에서 말하는 칠서(七書)란 징비록(徵秘錄), 운기귀책(運奇龜策), 요람역세(要覽歷歲), 동세기(東世記), 동차결(東車訣), 감결(鑑訣), 감인록(鑑寅錄) 등 7 계열의 문헌을 말한다. 아울러 40편의 비결 문헌이라 한 것은 7서 중에서 동차결(2편), 감결(23편), 감인록(18편) 등에 수록된 세부 목차상의 43편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것은 수록 문헌도 제일 많고 가격도 저렴한데도 다른 책에 비해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사실, 앞서 나온 호소이 하지메 본이나 한 달 뒤 출간되는 현병주 본은 저본에 편저자 자신의 교정을 가하거나 비평 또는 해석을 싣고 있지만, 김용주 본은 거의 날것 그대로의 원문만을 제공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김용주 본과 더불어 야나기타 분지로의『진본 정감록』도 소개되고 있으나 당시에도 이미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간행본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는 김용주 본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 질적으로는 편저자의 비평적 교석을 담은 호소이 하지메 본이나 현병주 본에 밀렸을 수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진본 정감록』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은 현재 네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행처(이문당, 정직서관)를 달리하고 있으나 모두 동일본이라 할 수 있

---

10)「秘訣鄭鑑錄은 류사한것이 만흐니 진본에 주의가 필요」,『매일신보』1923.3.27. 3면.

11) 김용주 본은『동아일보』1923년 3월 28일(4면)자 신간소개란에도 게재되는데, 강점으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 1923년 출간 당시 인쇄소(신생활사 인쇄부)는 한군데였으나 발매소(또는 발행소)는 이문당(경성), 군서당서점(경성), 동아서림(함흥), 정직서관(경성), 문화서관(경성) 등 5곳으로 나뉘어 있었다. 2017년 필자가 입수한 간행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장본과 같이 이문당에서 발매한 것이었다.

소장처	발행처	비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문당	동 188.4 유73ㅈ
국민대학교	정직서관	고 187.3 진01
고려대학교	정직서관	대학원 C10 A35B
영산대학교	정직서관	권우古 188.4 유73저

<표2>『진본 정감록』소장현황

『진본 정감록』은 본문 72쪽(목차 2쪽, 간기 1쪽) 분량으로, 다양한 필사본을 망라한 김용주 본(본문 173쪽)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호소이 하지메 본이나 현병주 본과는 비슷한 규모라 할 수 있다. 목차는 크게 1) 정씨와 이씨의 대담 형식을 취한 감결류 문헌(「鄭堪錄」)에다 2) 기타 비결류 문헌(諸家秘訣)을 부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야나기타 본은「정감록」1편과 제가비결 22편을 포함해 전체 23편을 담고 있으며, 수록 문헌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鄭堪錄	諸家秘訣
鄭堪錄	三韓山水秘記, 玉龍子訣, 無學訣, 土亭家藏訣, 浪仙子訣, 西窓棟樑記, 虛庵訣, 東老年記論, 東翁論, 兩湖論, 西庵訣, 格庵訣, 吳道人訣, 聾啞翁訣, 鄭淳翁訣, 鄭柳問答, 杜師忠秘訣, 肅廟夢中詩, 西溪李先生家藏訣, 九宮變數法, 八域門, 諸訣解

<표3>『진본 정감록』의 목차

Ⅲ.「鄭堪錄」편의 내용 분석

야나기타 분지로 본에 대한 검토는 일차적으로 호소이 하지메 본의「감결」편에 상응하는「정감록」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흔히 '감결류' 문헌으로 지칭되는데, 이(李)와 정(鄭)의 대담을 통해 예언의 서사를 구성해가는 형식을 취하는 게 특징이다. 호소이 하지메 본과 현병주 본의「감결(鑑訣)」,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정감록(鄭堪錄)」, 김용주 본의「징비록(徵秘錄)」,「운기귀책(運奇龜策)」,「비지론(秘知論)」,「정이감여론(鄭李堪輿論)」,「정감문답(鄭堪問答)」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여러 필사본에서 보이는「정이문답(鄭李問答)」,「이정구산론(李鄭求山論)」,「이정유산론(李鄭遊山論)」,「산수론(山水論)」,「유산결(遊山訣)」,「뎡감록비결」등의 편명도 감결류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여타 감결류 문헌과 비교·검토하면서,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정감록」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의 특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답산자: 대화의 주체

야나기타 분지로 본「정감록」편의 첫 구절은 장차 예언의 서사를 이끌어갈 대담자를 등장시키는, 일종의 지문(stage direction)으로 시작된다. 즉 완산백 이공(完山伯李公)의 두 아들 이심(李沁)과 이연(李淵)이 서촉(西蜀)에서 온 정감(鄭堪)과 함께 국내 산천을 돌다 금강산 비로봉에 이른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들 세 명의 실제적인 대담(dialogue)은 금강산에서 시작된다. 대담자의 구성만 보아도 이씨에서 정씨로의 왕조교체를 현안으로 삼았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직감할 수 있다.

먼저, 주목해볼 것은 대담자 이씨에 관한 설정이 크게 두 가지 전승으로 갈린다는 점이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에서는 완산백 이공의 세 아들 중, 일찍 죽은 장자 이림(李淋)[12]을 제외한 차자(沁)와 삼자(淵) 형제가 대담자의 한 축을

12) 호소이 하지메 본에서는 '淋'이 아닌, '林'으로 표기되어 있다.

담당한다. 이러한 설정은 호소이 하지메 본이나 현병주 본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김용주 본 「정이감여론(鄭李堪輿論)」과 「정감문답(鄭堪問答)」과 같은 감인록 계열의 일부 문헌에서는 이들이 형제 관계가 아닌 조상과 후손(심이 연의 7대손)의 관계로 설정된다.

한승훈은 어느 서평문에서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본인 『제가비설(諸家祕說)』 내의 세부 텍스트 명칭에 의거, 감결류의 문헌을 구산계(求山系)와 유산계(遊山系)로 구분한 바 있다.[13] 구산계 문헌은 중국의 연(淵)으로부터 계(季), 흡(洽), 귀수(龜壽), 원조(元祚), 무명씨(無名氏) 등을 거쳐 심(沁)[14]의 형제에 이르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씨 집안이 중국으로부터 완산으로 이주해온 내력을 밝혀나간다. 아울러 심이 중국에서 정감을 만나 예정된 명당인 금강산 아래 향린동(香麟洞)을 찾아오는 것으로 설정된다. 반면, 유산계는 대부분의 가계를 생략한 채 완산백으로 봉해진 이공의 세 아들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며 심과 연이 형제로 등장한다. 아울러 이씨 형제와 정감이 만나는 과정도 생략된 채 금강산 답사로부터 왕조의 교체, 교체기의 징후, 십승지와 피장처 등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결국 세 등장인물의 설정을 놓고 볼 때 야나기타 분지로 본은 유산계 문헌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23년의 간행본 당시 이미 정감록 편저자들은 두 계열의 감결류 문헌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취사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병주 본의 경우에는 심의 형제인 연(淵)을 언급하면서 "일설에는 심의 7대조라고도 한다(一云 沁之七代祖)"는 주를 달고 있는데, 등장인물을 달리하는 이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용주 본의 경우 심과 연의 형제설 전승을 담은 「비지론」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조상-후손설 전승을 따르는 「정이감여론」과 「정감문답」을 동일 감인록 계열에 함께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정이감여론」에서 이심을 연의 7대손이라 언급하면서 "비지론에서는 형제라고 한다(秘知論云兄弟)"는 보주를 싣고 있는데, 이는 편자의 주라기보다는 입수한

13) 한승훈, 「최초의 정감록 영역본, 그리고 한국 에언서 연구의 난제들」, 『한국문화』 84 (2018): 448.

14) 김용주 본 「정감문답」에서는 심의 형제가 장자 소(泝), 차자 심(沁), 말자 림(淋)으로 구성된다.

필사본에 이미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필사자의 단계에서 또 인쇄업자의 단계에서 두 전승은 충분히 인지되고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산계의 전승이 (이)심과 (정)감의 대담으로 이어지는 반면, 유산계는 심과 감뿐만 아니라 심의 형제인 연도 대담에 동원된다. 그러나 유산계의 문헌에 있어서도 이야기의 주요 골자를 이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과 감이라 할 수 있다. 연의 역할은 대화의 추임새 역할이나 대담의 주제를 환기하는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다. 특히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경우에는 연이 3번의 짤막한 대사를 소화할 뿐이어서 여느 이본들에 비해 연의 역할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대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정감의 표기는 크게 '鑑', '堪', '勘' 등으로 삼분된다. 호소이 하지메 본이나 현병주 본은 '정감(鄭鑑)'의 표기를 따르고 있으며 대담자를 표기할 때는 감이 아닌, '정(鄭)'으로 표기하고 있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과 김용주 본「정감문답」및「징비록」은 '정감(鄭堪)'의 표기를 따르며 대담자를 표기할 때에는 '감(堪)'을 사용하였다. 다만, 김용주 본「비지론」의 경우에는 '정감(鄭勘)'의 표기를 따르되 대담자의 표기에 있어서는 '정(鄭)'을 사용하였다. 정감에 대한 이질적인 표기는 정감록의 서명 표기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 '鄭鑑錄'의 표기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나기타 분지로 본처럼 '鄭堪錄'의 표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미 18세기 정조와 김종수의 대화에서도 확인되듯이[15] '鄭勘錄'의 용례도 내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왕조의 교체: 백년왕국론

감결류의 문헌들은 대체로 고려조부터 이조 이후 왕조의 교체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유산계열의 문헌들은 대담 첫머리에 이 이야기를 배치한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을 살피기에 앞서 호소이 하지메 본에서 언급한 왕조교체의 흐름에 대해 주목해보자.

15)『승정원일기』1629책(탈초본 86), 정조 11년 7월 15일.

정(鄭)이 말하기를, “곤륜산으로부터 흘러나온 맥이 백두산에 닿았다. 그 원기(元氣)가 평양에 이르렀으나 이미 1천년의 운이 지나갔다. 그 기운이 5백년의 땅 송악으로 옮겨왔으나 요승(妖僧)과 궁희(宮姬)의 작난(作亂)으로 지기가 쇠해지고 천운이 막히고 말았다. 결국 그 운이 한양으로 옮겨왔다. 그 대강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쟁은 평정되지 않고 충신은 죽음에 몰려 건곤이 여전히 한밤중이다. 남쪽으로 건너온 교룡은 어디로 갔을까. 모름지기 백우(白牛)를 따라 성(城)으로부터 달아났을 것이다.”고 하였다. 심(沁)이 말하기를, “내맥(來脈)의 운이 금강산으로 옮겨지고, 태백과 소백에 이르러 산천의 정기가 모여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그곳이 바로 정씨 8백년의 땅이 된다. 다시 원맥(元脈)이 가야산 조씨 1천 년의 땅과 전주 범씨 6백년의 땅을 거친 뒤 왕씨가 부흥할 땅 송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후는 미상이니 상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16]

위에서 언급된 왕조교체의 흐름은 ‘송악 왕씨 500년 → 한양 이씨 → 계룡 정씨 800년 → 가야 조씨 1000년 → 전주 범씨 600년’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김용주 본「징비록」과 현병주 본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조의 향국(享國) 기간만을 고정하지 않은 것은 당대에 대한 평가 유보일 수도 있고,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전략일 수 있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도 첫머리에서는 이조의 향국 연한을 언급하지 않는 듯하다가 곧바로 왕조교체의 흐름을 재정립한다.

감(堪)이 말하기를, “조선국을 지세로써 논한다면, 송악은 왕씨 5백년의 땅이지만 후에 요승으로 인해 나라가 망한 뒤 수천년 이후에 천운(天運)이 순환하여 왕씨가 부흥할 것이다. **한양은 이씨 5백년의 땅이다**. 나라 말년에 요희(妖姬)가 국권을 오로지하여 패망할 것이다. 계룡은 정씨 8백년의 땅이다. 말년에 궁중의 음풍과 공주의 난정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나 오랑캐에 의해 멸망에 이를 것이다. 가야는 조씨 1천 년의 땅으로, 4-5대까지 신성(神聖)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충신과 어진 장수들이 모두 처형을 당하고, 용렬한 임금과 불충의 신하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법도를 어지럽힐 것이다. 해마다 기근이

16) 細井肇,『鄭鑑錄』「鑑訣」(안춘근,『鄭鑑錄集成』, 717-718).

들며 일월이 빛을 잃고 여름에 서리가 내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되어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다. 전주는 범씨 6백년의 땅이다. 북쪽 해도에서 온 범씨는 말의 얼굴에 사람의 몸을 하고(馬首人身), 온몸이 푸르며, 입으로는 화염(火炎)을 토해내며 신장이 팔척이나 된다. 그가 의병을 일으켜 완산에 곧바로 당도한 뒤 남서향으로 왕궁을 배치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위아래의 분수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활과 말을 다루는 무예만으로 등용하다 보니 예악이 영원히 끊기게 되고, 급기야 말세에 달팽이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蝸身人首) 이가 교동 땅에 나타나게 됨에 따라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17]

위의 내용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왕조교체의 흐름이 이조 500년이 삽입된, '송악 왕씨 500년 → **한양 이씨 500년** → 계룡 정씨 800년 → 가야 조씨 1000년 → 전주 범씨 600년'의 틀로 완성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존하는 감결류 문헌에서 이조 5백년설이 언표된 것은 야나기타 분지로 본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이조 5백년설은 '송악 왕씨 500년 → **한양 이씨 300년** → 계룡 정씨 500년 → 가야 조씨 1000년 → 전주 범씨 600년'[18]을 표방한 아사미문고 본『제가비설(諸家祕說)』의 이조 3백년설과, '송악 왕씨 500년 → **한양 이씨 400년** → 계룡 정씨 800년 → 가야 조씨 800년 → 전주 범씨 미정'[19]의 흐름을 제시한 김용주 본「운기귀책」의 이조 4백년설과 비교된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5백년설은 조선후기에 이조의 왕운을 100년마다 연장해온

17)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1a-1b(본서는 앞뒤 2면을 1쪽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a와 b로 전후면을 구분할 것이다. 이하 동일). "堪曰 朝鮮之國 以地勢論之 松嶽乃王氏五百年之地 然後 以妖僧亡國 數千年以後 天運循環 王氏復興矣 漢陽乃李氏五百年之地 國末妖姬專權 以至於亡 鷄龍乃鄭氏八百年之地 其末宮中淫荒 公主亂政 反爲胡種 以至滅國 伽倻乃趙氏千年之地 至四五代 神聖繼作 其後 忠臣良將 皆以刑死 庸君賊臣 專權昧法 年荒歲飢 日月無光 夏日霜降 民多死亡 國乃滅亡 全州范氏六百年之地 范氏出於北海島 馬首人身 全體皆靑 口吐火焰 身長八尺 擧義直到完山艮坐坤向 坐而治國 不論上下之分 但用弓馬 永廢禮樂 及其末世 蝸身人首 出於喬桐地 則國隨而亡矣"

18)『諸家祕說』「李鄭遊山論」(버클리대 아사미문고 33.5).

19) 이와는 달리,「운기귀책」의 첫머리에서는 정씨 1000년, 조씨 1000년, 범씨 600년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조 이후의 향국 기간에 대해서는 동일본 내에서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서사라 할 수 있다.

최후 버전이랄 수 있다. 표4는 이조의 백년단위 운명론을 대표하고 있는 몇몇 문헌을 제시한 것이다.

구 분	왕씨	이씨	정씨	조씨	범씨
鑑訣(호, 현)	500		800	1000	600
李鄭遊山論(아)	500	300	500	1000	600
鄭堪問答(김)	400	300	500	800	
運奇龜策(김)	500	400	800	800	
徵秘錄(김)	500	400	800	1000	600
鄭堪錄(야)	500	500	800	1000	600

<표4> 정감록의 왕조 향국연한
*김=김용주, 아=버클리대 아사미문고, 호=호소이 하지메, 야=야나기타 분지로

야나기타 분지로 본은 감결류 문헌이 아닌, 비결류 문헌에서도 간간이 5백년설을 암시하고 있다. 가령,「삼한산림비기(三韓山水秘記)」에서는 조선의 국운이 고려(475년)를 능가할 것이라 하고,[20]「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 말미에서는 1392년으로부터 시작된 향국 연한이 1845년까지 454년간 지속될 것이라 언급한다.[21] 특히「토정가장결」 첫머리에서는 이조 5백년설이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우러러보고 굽어살피며 지난 몇 년간 운수(星數)의 가닥을 헤아려보니 한양(의 운)은 5백년에 불과할 것이다.[22]

위의 내용은 호소이 하지메 본이나 현병주 본의「토정가장결」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행본에 수록된 감결류 문헌에서는 이조 5백년설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가령, 김용주 본의 비결류 문헌(「李土亭秘訣」,「

20)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三韓山水秘記」, 6a. "歷代則過於王氏"

21)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土亭家藏訣」, 17b. "自太祖壬申至辰巳之末 而享國四百五十四年"

22)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土亭家藏訣」, 12b. "吾雖不才 仰觀俯察 通以積年星數之分 則漢陽不過五百年"

湖南所傳」)에서도 500년 내외의 이조 운명을 언급하고 있으나 감결류 문헌에서는 3백년설(감인록) 혹은 4백년설(징비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수록 문헌 간의 상호텍스트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감록 감결류 문헌에서 확인되는 이조의 왕운은 대개 3백년설, 4백년설, 5백년설 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담론은 조선후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위기론을 각각 반영하거나 부추기면서 예언의 긴박성을 부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예언의 적중성을 고려해 소운(小運) 또는 소수(小數)의 논리로 각각의 백년설에 α설을 추가했을 것이라 본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경우, 이조 5백년설을 내세우면서도 소운설에 입각해 400+α설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서사의 불안정성을 노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언을 대하는 독자 혹은 언중의 입장에서 보면 5백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5백년설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천년왕국론(millenialism)이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후기 감결류 문헌의 3백년설, 4백년설, 5백년설 등의 담론은 '백년왕국론(centennialism)'을 상상하게 만든다. 물론 천년왕국론이 천년 단위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변혁론을 일컫는 용어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백년단위로 왕조의 흐름을 설계하고 그 틀에서 이-정 교체의 시기를 백년단위로 조율해온 정감록 문헌의 전통을 고려할 때 차별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실제로 조선후기에는 정감록의 3백년설 또는 4백년설을 원천으로 한 반왕조운동이 여럿 목격될 정도로 텍스트 내의 백년왕국론은 텍스트 밖 사회로도 확산되었다.[23]

감결류 문헌에서 본 바와 같이 왕조의 흐름은 다소 간의 등락이 있으나 대개 백년단위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당대를 이-정 교체기로 인식한 조선후기 익명의 저자 혹은 필사자들은 이조의 왕운을 백년단위로 연장하며 개작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착오나 모순이 개입되기 마련이어서 문헌의 필사나 전승과정이 늘 일목요연하고도 일관되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23) 이에 대해서는 최종성,「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역사민속학』61 (2021): 12-25에 밝혀놓았다.

구하고 백년단위로 예언을 조정하면서까지 예언의 긴박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경향성을 읽어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고 본다.

구분	3백년설	4백년설	5백년설
감결류 문헌	鄭李堪輿論(김) 鄭堪問答(김) 李鄭求山論(아) 李鄭遊山論1(아) 山水論(오)	徵秘錄(김) 運奇龜策(김) 李鄭遊山論2(아) 鄭鑑錄(가) 遊山訣(안)	鄭堪錄(야)

<표5> 백년단위 위기설을 수록한 감결류 문헌들

*김=김용주, 아=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오=동경대 오구라문고,
가=교토대 가와이문고, 야=야나기타 분지로

표5에서 보듯이 이조의 왕운을 언급한 감결류 문헌들은 3백년설과 4백년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감록의 구전과 필사가 활발했던 17~18세기의 상황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며, 5백년설을 대망하던 19세기 이후 감결류의 재생산이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감결류의 왕운론을 넘어 우주론적 운세론으로 전환을 꾀했던 동학 이후의 개벽론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이-정 교체기: 혼돈의 징후들

정감록은 왕조의 교체기에 찾아올 혼돈과 그 징후들을 묘사한다. 특히 이-정 교체기의 혼돈을 언급하는 데에 많은 서사가 할당된다. 그에 앞서 왕-이 교체기의 말기적 징후를 첫머리에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요승(妖僧)과 궁희(宮姬)의 작난으로 천운이 막히고 지기가 쇠해지면서 다음 후보지인 한양으로 왕운이 전환된다는 내용이며, 그러한 암시를 확증하는 7언절구의 시구를 등장시킨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신들은 죽어 간다

상서로운 해가 세상을 비추며 기나긴 밤을 밝힌다
남쪽으로 건너온 사룡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름지기 흰 소를 따라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것이다[24]

위 내용은 이본 간에 한두 글자 정도의 편차를 보이긴 하나 유산계열 감결류 문헌에서 공통되는 것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승 구조를 지닌 비결시라 할 수 있다(표6).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이본은 없지만 대체로 김용주 본「운기귀책」과 아사미문고 본「우론」[25]과 내용상 동일하다. 주목되는 것은 3연의 '남쪽으로 건너온' 영웅 존재의 암시인데, 이-정 교체기의 정씨 진인이 해도(海島)로부터, 즉 '남쪽으로부터 건너오는' 이미지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방으로부터 한양으로의 남행이 왕-이 교체기를 대표한다면 해도로부터 계룡으로의 북행이 이-정 교체기의 모티프라 할 수 있다.

鄭堪錄(야)	干戈未定忠臣死 瑞日乾坤長夜明 南渡蛇龍今安在 須從白牛竄林行
鑑訣(호)	干戈未定忠臣死 乾坤長夜明 南渡蛟龍人何去 須從白牛走從城
鑑訣(현)	干戈未定忠臣死 瑞日乾坤長夜明 南渡蛟龍人何去 須從白牛走從城
秘知論(김)	干伐未完忠良死 瑞日乾坤長夜明 南渡蛇龍入何去 須從赤牛走縱橫
徵秘錄(김)	干戈未定忠臣死 瑞日乾坤長夜明 南渡蛟龍人何去 須縱白日走林中
運奇龜策(김)	干戈未定忠臣死 瑞日乾坤長夜明 南渡蛇龍今安在 須從白牛竄林中
李鄭遊山論(아)	干戈未定忠臣死 瑞日乾坤長夜明
又論(아)	干戈未定忠臣死 瑞日乾坤日夜明 南渡蛇龍今安在 須從百牛竄林中

<표6> 왕-이 교체기를 암시하는 비결시

*호=호소이 하지메, 현=현병주 김=김용주, 야=야나기타 분지로, 아=버클리대 아사미문고

현존하는 감결류 문헌의 이본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이-정 교체기의 때와 징후를 언급하는 데 주력한다.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경우, 이조 5백년설을 전제하면서도 이-정 교체기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400년+α설'을 끌어들여 혼돈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24)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1a. "干戈未定忠臣死 瑞日乾坤長夜明 南渡蛇龍今安在 須從白牛竄林行"

25)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본『諸家祕說』의「又論」은「李鄭遊山論」에 이어진 편명이므로 또 다른「이정유산론」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대저 이씨 한양 4백년의 땅은 대운(大數)에 있다. 만약 소운(小數)으로 논한다면 4백년 이후 햇수를 한정할 수는 없는 어느 때가 되면 급기야 장차 망할 것이다. 한강 물이 이틀간 벌겋게 흐를 것이고 궁중에 유혈이 낭자할 것이며, 해와 별이 서로 다투는 통에 검은 구름과 어두운 안개가 7일간 하늘을 가릴 것이다. 그 뒤 진인이 남쪽 바다로부터 계룡산으로 도래하여 창업할 것이다.26)

비록 이조 5백년설을 전제하고 있지만, 혼돈의 과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는 400년+α설의 전승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α의 규모를 정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야나기타 분지로 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본들이 4백년 후 7갑자가 돌아오는 원숭이해 3월을 지목한다.

> 감(堪)이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어떤 말인들 못하겠는가. 너희 자손이 4백년의 국운을 누린 후, 7번째 갑자를 맞이하는 신년(申年) 3월이 바로 그때이다. 안성과 죽산 사이엔 시체가 산 같이 쌓이고, 양평과 광주 언저리엔 닭과 개소리가 사라지며, 수성과 당성 사이엔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룰 것이다. 그해 8월에는 인천과 부평 사이에선 밤중에 1000척의 배가 정박할 것인데, 이때가 되면 몸을 보전하고 삶을 도모할 만한 땅으로 열 군데가 있다."고 하였다.27)

1392년(壬申) 조선 개국의 해를 기준으로 400년이 되는 1792년(壬子)을 넘기고 처음으로 찾아오는 원숭이해는 1800년(庚申)이며, 이후 1812년(壬申), 1824년(甲申) 등등으로 이어진다. 개국 후 7갑자의 순번을 거친 원숭이해는 경신년(1800)이며, 임신년(1812)의 경우에는 개국 후 8갑자를 맞이하는 해라 계산상으로는 경신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나기타 분지로 본을 포함

---

26)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1b. "大抵 李氏漢陽四百年之地 在於大數 若以小數論之 則四百年以後 無限年而及其將亡 漢江之水 赤湯二日 血流宮中 日星相戲 玄霧黑雲 蔽天七日以後 眞人自南海而來 鷄龍剏業"

27)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2a. "堪曰 吾三人相對 何所不言 汝之子孫 享國四百年後 七甲子申年三月 乃其時也 安竹之間 積尸如山 楊廣之際 鷄犬無聲 隋唐之間 流血成川 聖歲八月 仁富之間 夜泊千艘 當此時 保身圖命之地 有十勝處"

한 대부분의 이본들이 파자나 측자의 형식으로 '임신년 기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1812년설도 주목할 만하다.

> 이때를 당해 사람들은 재물 챙길 줄은 알면서도 제몸 챙길 줄은 모른다. 선비(士子)가 모자를 벗겨 쓰고(橫冠), 신인(神人)이 옷을 벗고(脫衣), 달아나는 뱀(走蛇)은 머리가 없고(無頭), 작은 산(小山)엔 발이 달려 있다(有足). 말년에 혜성이 진성의 머리에서 나와 은하수로 들어가 자미성을 범하고, 두성으로 이동해서 곡성, 수성, 화성으로 옮겨가면 대중(중국)과 소중(조선)이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연후에야 천명과 인심을 알게 될 것이다.[28]

鄭堪錄(야)	士子橫冠 神人脫衣 走蛇無頭 小山有足
鑑訣(호, 현)	士者橫冠 神人脫衣 走邊橫己 聖諱橫入
秘知論(김)	士子橫冠 走邊橫已 神人脫衣 聖諱加八
運奇龜策(김)	士子橫冠 神人脫衣 走蛇無頭 小山有足
李鄭遊山論(아)	士子橫冠 神人脫衣 走邊加己 聖諱加八
又論(아)	士子橫冠 神人脫衣 走巳無頭 小山有足

<표7> 왕-이 교체기를 암시하는 비결시

*호=호소이 하지메, 현=현병주 김=김용주,
야=야나기타 분지로, 아=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사자횡관(士子橫冠)'은 士 위에 비스듬히 관을 쓴 형국으로 하나의 획을 추가해 壬으로, '신인탈의(神人脫衣)'는 神에서 옷(衤=礻)을 제거해 申으로, '주사무두(走蛇無頭)'는 走와 巳(己)를 결합해 起로, '소산유족(小山有足)'은 丘(小山) 아래에 두 획(八)을 발로 삼아 兵으로 각각 파자해내 임신기병(壬申起兵)을 완성하는 것이다. 표7에서 보듯이, 임신기병에 대한 파자의 전승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널리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구(丘)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작은 산(小山) 대신 성인 즉 공자의 휘(孔丘)를 활용하는 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임신기병의 서사를 고려할 때, 개국 400년후 7갑자 신년

28)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1b. "當此之時 人知有財 不知有身 士子橫冠 神人脫衣 走蛇無頭 小山有足 末來彗星出於軫頭 入於河魁 犯於紫微 移於斗牛 遷於穀宿 水星與火星 大中小中俱亡 如此然後 天命人心 可知矣"

을 1812년의 임신년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개국 원년(임신년)을 계산에 넣지 않고 1812년 임신년을 7갑자 신년으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정 교체기의 재난상황에 대한 묘사에 주목해보자.

> 심(沁)이 말하기를, "검은 용(黑龍=임진)과 붉은 쥐(赤鼠=병자), 누런 소(黃牛=기축)와 누런 원숭이(黃猿=무신) 때에도 천명은 여전하겠지만 임금은 어리고 나라는 위태로울 것이고,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던 신하들에게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감(堪)이 말하기를, "검은 원숭이(黑猿=임신)의 병란을 겪은 뒤 9년간의 대흉년에 들 것이며, 사람들이 나무껍질을 먹느라 천리에 이어진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희게 될 것이다. 4년간의 전염병이 돌 것이니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대부가는 인삼으로 망하고, 벼슬하는 사람은 이익을 탐하다 망하며, 지방관리는 재물을 챙길 줄만 알고 민심 챙길 줄 모른 채 옥체를 돌보는 데에만 미쳐 있을 뿐이다. 권신은 국정을 전횡하고 황지(潢池)를 제멋대로 빼앗아 양식의 근심은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리걸식해야 하는 곤궁에 빠지고,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땅을 파고 곡식을 쌓을 방도를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어리석은 백성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하였다.[29]

주목되는 것은 임진(1592), 병자(1636), 기축(1589), 무신(1728), 임신(1812?) 때 겪은 역사적 경험을 이-정 교체기의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 데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예언의 서사로 활용하면서 독자나 언중으로 하여금 예언의 적중성을 공감하게 하는 동시에 예언의 임박성을 환기시키는 데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혼돈기의 징후로 언급되고 있는 9년의 대흉년(九年大歉)과 4년의 전염병(四年染疾)도 감결류 문헌에서 자주 등장한다. 호소이 하지메 본 및 현병주 본의 「감결」과 김용주 본 「징비록」에서는 사년염기(四年染氣)를 사용하고

29) 柳田文治郎, 『眞本鄭堪錄』 「鄭堪錄」, 2b-3a.

있으나 야나기타 분지로 본의 사년염질(四年染疾)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4년의 전염병과 관련해 눈에 띄는 문헌에 주목을 요한다.

> 말세에 지양올 자세이 말ᄒᆞ이라 ᄌᆞ셰드러라 구연 큰 흉연의 빅성이 나무겹 풀드터며고 사연괴질의 염병의 부자가ᄂᆞᆫ 인삼으로 망ᄒᆞ고 사환ᄒᆞᆫᄂᆞᆫ 사ᄅᆞᆷ은 탐심으로 뉵고[30]

> 삼년의 흉년이 들어 사람들 목피로 연명하니 천리에 이어진 소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희어진다. 4년의 전염병에다 2년의 괴질로 살아남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31]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한글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뎡감녹비결」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연 큰 흉연'은 한문 간행본의 구년대겸(九年大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사연괴질'은 사년염질 혹은 사년염기와 차이가 난다. 1821년 신사년 괴질 이래로 '괴질'은 일반적인 전염병과 달리 콜레라로 인식된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함이 있다고 본다. 다른 전염병에 비해 급사자가 많았던 콜레라는 천주교 신자들에겐 세례를 부추기는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고, 동학창도 시기에는 새로운 운세가 도래하는 개벽의 기호로 이해되었다. 더욱이 콜레라가 1858년부터 4-5년간 지속되었다는 달레의 기록[32]을 고려할 때,

---

30) 안춘근, 『정감록집성』, 7.

31) 『諸家祕說』「又論」. "三年凶荒 人食木皮而生 千里連松 一夜盡白 四年染疾 兩年怪疾 生之者幾人"

32) 샤를리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중, 안응렬·최석우 역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01-102. "辛巳(1821)년에는 콜레라가 만연하여 그 때까지 예비신자에 지나지 않던 많은 교우들이 聖洗聖事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임시하여 領洗하고, 어떤 이들은 再生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죽을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서둘러서 세례를 받았다. … 조선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지금도 벌벌 떤다. 어디를 가나 죽음이요, 약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가정이든지 초상이 나고, 어떤 집에든지 시체가 있고, 또 가끔 행길에 송장이 즐비한 경우도 있었다. … 어떻든 병은 사라지고야 말았다. 그 때부터 1850년까지 다시는 전염병의 창궐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콜레라가 이 나라에 뿌리를 받다시피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막대한 희생을 내게 하였는데, 특히 1858년과 그 후 4,5년간이 더욱 심하였다."

이 시기와 4년의 괴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사 시기를 가늠하는 문제라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용문은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본에 실린 내용의 일부로서 4년의 염질과 별도로 2년의 괴질을 운운하고 있다. 염질과 괴질을 구별해서 묘사한 것 역시 콜레라 경험 이후의 필사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고찰을 요한다.

4. 십승지: 피장처

정감록 문헌은 변화의 때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그때의 질곡을 피할 만한 땅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였다. 사실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왕조교체의 주역이 되는 것보다 교체기의 난리에 생을 부지하는 게 관건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가올 왕조를 대망하기보다는 당장 난리를 피할 길지를 예비하는 것이 훨씬 지대한 관심사였다. 감결류 문헌 내에서 구산계 전승이 향린동이라고 하는 명당터를 지향하였다면, 유산계 전승은 몸을 숨길 만한 십승지에 주목하였다. 물론, 김용주 본 「운기귀책」이나 「징비록」과 같이 향린동의 서사와 십승지의 서사를 병행시킨 혼합형도 확인된다. 사실, 양식적인 측면에서 대담형식의 감결류 문헌은 이질적인 계열의 비결전승도 대화구조에 포섭할 만한, 흡인력이 큰 개방적인 대본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본다. 특히 후대로 갈수록 양적으로 증대된 감결류 문헌이 생성될 수 있었을 것이고, 김용주 본에 수록된 몇몇 감결류 문헌들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유산계열의 감결류 문헌들은 십승지 목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개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두 목록을 등장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십승지에 관한 한 적어도 두 개의 전승이 있었고, 감결류 문헌들은 그 두 버전을 적당한 위치의 대화에 삽입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십승지의 버전 중의 하나는 십승지 전승의 원천 격으로 여겨지는 「남격암산수십승보길지지」의 목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8에서 보듯이 호소이 하지메 본이나 김용주 본은 두 가지 십승지 버전을 담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는 남격암의 전승과 일치하고 있다. 남격암 전승 목록에만 보이는 것이 보은, 영월, 무주, 부안 등이고, 남격암 전승

목록에 없는 것이 김천(개령용궁), 단춘(단양영춘), 진목(진천목천), 태백 등이며, 두 버전이 공통되는 것이 풍기, 안동, 운봉, 예천, 공주, 가야 등이다.

구분	南格庵山水十勝保吉之地(호)	鄭堪錄(야)	鑑訣(호, 현)		運奇龜策(김)	
1	基川車岩金鷄村	豐基車岩金鷄村	豐基醴泉	豐基車岩金鷄村	豊基車岩金鷄村	豊基
2	華山	華山安東	安東華谷	花山	華山	扶安
3	報恩俗離蒸項	報恩俗離山蒸項	開寧龍宮	報恩俗離山甑項	報恩俗離山甑項	龍宮
4	醴泉金堂洞	雲峯頭流山銅店村	伽倻	雲峯杏村	雲峯頭流山銅店	伽倻
5	雲峯頭流銅店村	醴泉金堂洞	丹春	醴泉金塘室	豐泉金堂洞	丹春
6	公州維鳩麻谷	公州維鳩麻谷	公州定山深麻谷	公州鷄龍山維鳩麻谷	公州維鳩麻谷	公州
7	寧越正東	寧越正東	鎭木	寧越正東	寧越正東	三豐
8	茂朱舞豊北洞傍陰	茂朱茂豐北方相洞	奉化	茂朱舞鳳山北銅	茂朱豐北方洞	奉化
9	扶安壺岩	扶安壺岩	雲峯頭流山	扶安壺岩	扶安壺岩穴	醴泉
10	伽倻山萬壽洞	星州伽倻山萬壽洞	太白	星州伽倻山萬壽洞	陜川伽倻山萬壽洞	大小白

<표8> 정감록 문헌의 십승지 목록

*호=호소이 하지메, 현=현병주 김=김용주, 야=야나기타 분지로

야나기타 분지로 본은 십승지 목록을 한차례 제시할 뿐이며 내용은 남격암의 목록과 일치한다. 다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목록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을 뿐이다. 십승지와 더불어 몇몇 주요 피장처에 대한 언급도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곳이 양백(兩白)과 삼풍(三豐)이다.

> 심이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고,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한다. 이곳은 병란과 흉년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33]

여러 이본에서도 흔히 확인해볼 수 있는 유명한 대목이다. 양백(태백과 소백)은 임시적으로 난리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처할 만한 땅으로서 어진 재상과 용맹한 장수가 계속 배출되는 피장처로 여겨졌다. 실제로 양백 사

33)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2b. "沁曰 當其時 求穀種於三豐 求人種於兩白 此處兵火凶年不入"

이에 있는 지역들이 십승지 목록에 여럿 들어있을 정도로 피장처의 일번지는 양백, 특히 태백이었다. 한편, 곡식의 종자를 얻을 만큼 생업의 염려가 없는 삼풍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특정 지역을 묶어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김용주 본「비지론」이나 아사미문고 본「이정유산론」의 보주에 언급된 풍기(豊基), 연풍(延豊), 무풍(茂豊)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야나기타 분지로 본은 피장처와는 달리 화를 입을 땅으로서 피신하기에 곤란한 지역도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이본에서도 공유되는 내용이다.

> 금강의 서쪽, 오대의 북쪽은 살기가 번득이고 9년의 홍수와 12년의 병란이 들 곳이라 도피하기에 심히 어려운 곳이다.[34]

> 연이 말하기를, "후세 사람들이 용문을 은신할 만한 장소로 여기겠지만, 이미 생기가 한양에 빼앗겨 실제로는 모두 죽음의 땅이다. 만약 이산에 거한다면 1년 이내에 만 명이 다 죽을 것이다."고 하였다.[35]

금강산의 서부, 오대산의 북부에 해당되는 강원 산간지역은 병화와 재난이 닥칠 곳으로 피난처가 아니라 회피해야 할 곳으로 지목된다.[36] 아마도 조선후기 호란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근의 용문산은 서울로부터 지기를 상실한 사지로 언급되는데, 역사적 경험보다는 풍수상의 논리로써 부정되고 있다.

---

34)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2b. "金剛之西 五臺之北 殺氣閃々 九年大水 十二年兵火 逃避甚難"

35)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鄭堪錄」, 3a. "淵曰 後世之人 以龍門爲隱身之所 然生氣已奪於漢陽 實則皆死穴也 若居此山 則一年之內 萬命咸死矣"

36) 그러나 규장각 소장『秘訣輯錄』(奎7568)에 수록된「화악노정기(華岳路程記)」나「북두류노정기(北頭流路程記)」등에서 보듯이 강원 북부지역의 피장처에 대한 전승도 없지 않았다.

Ⅳ. 나오는 말

지금까지 야나기타 분지로 본『진본 정감록』의 일반적인 서지 사항과 수록 문헌「정감록」편의 내용을 시론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주로 1923년 동시대에 간행된 호소이 하지메 본, 현병주 본, 김용주 본과의 부분적 비교를 통해 야나기타 분지로 본이 가지고 있는 일반성과 독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 몇 가지 작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야나기타 분지로 본「정감록」은 이심(李沁)과 이연(李淵) 형제가 정감(鄭堪)과 더불어 국내 산천을 답사하며 지기의 응집과 왕조의 운명 및 성쇠를 논하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산계통의 전승과 관련된다. 다만, 동일계열의 이본에 비해 대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둘째,「정감록」은 내용상 김용주 본「운기귀책」에 담긴 일부 내용과 통하는 면이 상당하지만, 유독 이조 5백년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부분의 유산계 감결류 문헌들이 17~18세기 위기상황을 담은 3백년설과 4백년설에 경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셋째, 야나기타 분지로 본에 반영된 이-정 교체기의 혼돈과 그 징후는 여느 감결류 문헌의 전승과 공유지점이 많으며, 차후 이본 간의 계통과 선후관계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 만한 서사라고 여겨진다.

넷째, 유산계 감결류 이본들과는 달리「정감록」은 십승지 목록을 1회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 구성상 남격암 전승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정감록 신앙이나 운동에 주목하려던 경향에 비해 정작 정감록 문헌 자체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야나기타 분지로 본「정감록」편에 한정하였지만, 차후 텍스트 내에서의 상관성과 이본 텍스트 간의 연관성을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한정된 번역 문헌에 의존하는 논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야나기타 분지로, 진본 정감록, 정감록, 조선 왕조, 예언서

투 고 일: 2022. 11. 01.
심사종료일: 2022. 11. 21.
게재확정일: 2022. 11. 24.

참고문헌

『堪論抄』(동경대 오구라문고 L44770).

『秘訣輯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7568).

『鄭鑑錄』(교토대학교 河合文庫).

『諸家祕說』(버클리대 아사미문고 33.5).

細井肇.『鄭鑑錄』, 東京: 自由討究社, 1923.

柳田文治郎.『眞本鄭堪錄』, 京城: 以文堂, 1923.

金用柱.『鄭鑑錄』. 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3.

玄丙周.『批難鄭鑑錄眞本』. 京城: 右文館書會, 1923.

안춘근 편.『鄭鑑錄集成』.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김수산·이동민 편.『鄭鑑錄』. 서울: 명문당, 1968.

김신회.「'남사고 예언서'의 성립과 확산」.『한국문화』94 (2021): 251-290.

_____.「'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 예언'」.『한국문화』92 (2020): 197-227.

_____.「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남혜원.「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정감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박병훈.「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종교와문화』41 (2021): 1-33.

박해선.「식민지 조선과 정감록」,『일본근대학연구』59 (2018): 293-310.

최종성.「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역사민속학』61 (2021): 7-36.

한승훈.「최초의 정감록 영역본, 그리고 한국 예언서 연구의 난제들」.『한국문화』84 (2018): 433-453.

Jorgensen, John.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 Chŏng Kam nok and insurrectionary prognostication in pre-moder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Bibliography and Contents of Yanagita Bunjiro's *Jinbon Jeonggamnok*

Choi, Jong Seong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deals with the *Jinbon Jeonggamnok* (眞本鄭堪錄) published by Yanagita Bunjiro (柳田文治郎) in 1923. This book is one of the first *Jeonggamnok* documents published in Korea along with Kim Yongju's *Jeonggamnok* (鄭鑑錄). In 1923, Korean prophetic documents, which existed only as manuscripts, were competitively published in Japan and Korea under the same title of 'Jeonggamnok'. This paper examines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Yanagita Bunjiro's book through comparison with contemporary publications: Hosoi Hajime's *Jeonggamnok* (鄭鑑錄), Kim Yongju's *Jeonggamnok* (鄭鑑錄), and Hyun Byeongju's *Binan Jeonggamnok* (批難鄭鑑錄眞本). In addition, this paper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narratives of Jeonggamnok (鄭堪錄), the first chapter of *Jinbon Jeonggamnok*, from a comparative literature perspective. Korean prophetic writings often refer to the fate of the Joseon Dynasty in units of 100 years: 300-year story, 400-year story, and 500-year story. Unlike many versions, Yanagita Bunjiro's *Jeonggamnok* contains a 500-year story, which is presumed to be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crisis discourse of people in the 19th century ahead of the 500-year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Keywords: Yanagita Bunjiro, *Jinbon Jeonggamnok* (眞本鄭堪錄), *Jeonggamnok,* Joseon Dynasty, prophetic writings